

회 의 자 료

韓日新産業貿易會議의 새로운出發에
즈음하여

(社)日韓經濟協會 是永 和夫 專務理事

<日本側 發表者> 是永 和夫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 성 명 :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 생년월일 : 1948년 5월 27일 (64세)

○ 학 력 : 1971년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學)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1971. 4 미쓰비시상사(주) 입사 (비철금속 제2부)
- 1981. 12 누메아주재원 수석 *누메아 : 누벨칼레도니섬 항구도시
- 1984. 12 니켈중금속부 (1989. 7 ~ 니켈합금철부)
- 1990. 5 요하네스버그지점 금속부장
- 1994. 요하네스버그지점 지점장 대행
- 1996. 2 니켈합금철부 부장대행
- 1998. 4 메탈사업부 부장대행
- 1999. 4 비서실장
- 2001. 4 요하네스버그지점장
- ~ 2001. 10 (겸직) 마푸토주재 사무소장 *마푸토 : 모잠비크의 수도
- (겸직) 루안다주재 사무소장 *루안다 : 앙골라의 수도
- 2002. 1 요하네스버그지점장
- ~ 2003. 3 (겸직) 마푸토주재 사무소장
- (겸직) 하라레주재 사무소장 *하라레 : 짐바브웨의 수도
- 2004. 4 이사 요하네스버그지점장
- (겸직) 마푸토주재 사무소장
- 2008. 4 이사 아프리카CRO
- (겸직) 요하네스버그지점장
- (겸직) 마푸토주재 사무소장
- 2009. 4 이사 업무부
- 2009. 7 코퍼레이트 담당임원 (지역전략) 상석고문
- 2010. 6 (사)일한경제협회 전무이사

※ 미쓰비시상사에 입사하여 상사맨으로서 30여년을 해외 자원개발 업무 담당

신산업무역회의의 새로운 스타트에 대하여

(社)日韓經濟協會 專務理事

고레나가 카즈오(是永 和夫)

일한경제협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의 전무이사 고레나가입니다.

신산업무역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이 회의의 방향성에 대하여 작년 말 우리측 카운터 파트인 한일경제협회와도 진지하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협의를 토대로 금번 신산업무역회의에서 새로운 스타트가 되도록 프로그램 등에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 날에는 참가자 전원에게 2~3분간 자유롭게 의견이나 감상 등을 발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래의 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에 대한 자문기관적 기능을 포함하여 지금 까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회의은 전문가의 발표적 색채도 강하고 본래 양국의 회원이 기탄 없이 논의한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이 약해진 듯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폭넓은 입장에서 자신의 언어로 논의할 수 있도록 각자 발언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경제인간의 우의 도모 및 이해 증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간담회 자리도 설정하고 일정도 1박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불만스런 점이 있으며 거리낌없이 지적해주시기를 바라며 우선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종래의 신산업무역회의에서는 다수의 제언을 실시해오고 있었습니다. 각 제언에 대한 일본정부의 답변은 「광범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한일EPA/FTA의 체

결에 맞추어 추진하고 싶다」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조기 교섭재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일EPA/FTA도 한중일 투자협정이 5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한중일EPA/FTA의 교섭개시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일본정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EPA/FTA의 체결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언을 실행하기 위한 실천에도 주력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우리들의 PR부족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제언해 온 사항은 한일·일한 양재단의 사업을 통하여 착실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방한미션, 다시 말해 역견본시, 부품·소재상담회 등의 재단사업이 이에 해당됩니다만 이번에 이에 관한 발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 아소 চে어맨의 인사 중에도 언급되었습니다만 한일 고교생·대학생·이공계 대학원생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지원해 온 「동아시아청소년교류기금」이 금년 3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한일양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의 지원·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第43回 韓日經濟人會議 共同聲明의 性格과
今後의 韓日協力 方向

(社)韓日經濟協會 이종운(李鐘允) 副會長

<韓國側 發表者> 李 鐘 允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1) 성 명 : 이 중 윤(李鐘允, RHEE Chong-Yun)

2) 생년월일 : 1945년 2월 22일

3) 학 력

1964~1969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1977~1979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경영학 석사
1979~1984	일본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경영학 박사



4) 주요경력

1984~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994~1996	한국외국어대학교 기획조정처장
1996~1998	한일경상학회 회장
1998~1999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1999~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장
	[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부문 계획위원
	[前]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
	[前] 교육부 교육개혁 추진홍보위원
	[前]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문위원
	[前] 전국경제인 연합회 자문위원
	[前]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센터 자문위원
2010~	[前]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前] (주)KT 경제고문
2011. 1 ~ 2012. 1	(사)한일경제협회 專務理事
2011. 1 ~ 현재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무이사
2012. 2 ~ 현재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5) 주요저서 및 논문 등

2008. 4.	한국경제의 불안정과 새로운 발전모델
2005.12.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한중일의 협력
2005.10.	일본금융개혁과 4대 은행의 경쟁력 분석
2007. 2.	전환기의 한일경제
2002. 8.	몸부림치는 한일경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 공동성명의 성격과 금후의 한일협력 방향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이종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일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존의 미국 시장 지향적 발전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재정위기로 인한 EU경제의 불안정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안정 기반을 한층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구조가, 기술한 바와 같은 통상환경의 변화로 이대로는 더 이상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의 하나는, 미국과 유럽이 강한 경쟁력을 보이던 금융부문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위축되었으며,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미·구의 자본수지 흑자구조라는 균형구조가 사실상 크게 약화됨으로써 세계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쟁구조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라는 경제공동체를 가지고 유럽 국가들은 EU(유럽연합)라는 경제공동체를 가짐으로써 그네들은 경제권의 확대와 더불어 최소한의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간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공조체제가 없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외부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개별력과 당하는 취약한 구조를 노정(露呈)시키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동아시아 국가들도 안정거점으로써,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경제공동체로써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시장기구가 작동하여 개별기업의 활동이 예측가능하다는 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한다고 할 때, 한일의 협력적 노력이 극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일은 부존조건상 어느 나라보다 해외무역을 필요로 하며 시장기구가 뿌리를 내린 국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일은 중국시장 의존도가 높는데 중국은 아직 경제활동 과정에서 국가의 힘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따라서는 국가의 작위적인 조치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경우를 기존의 활동과정에서 적지 않게 목격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은 협력하여 시장기구가 작동하여 개별기업의 경제활동이 예측이 가능한 성격을 가진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일은 일층 강력한 협조 체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작년(2011) 3월 일본의 대지진, 쓰나미는 일본의 생산기지를 리스크 분산형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던졌다.

한국도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천안함 사태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생산기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바로 여기에 인접국가로서 그리고 시장기구가 뿌리내린 국가로서의 한·일이 양국을 포괄하는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한·일은 그 간의 경제발전과정에서 극히 유사한 경제구조를 형성해 버렸으며 양국 다 같이 대외의존성이 강하므로 제3국에서 과당경쟁을 조성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양국 간 산업 내 분업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바로 이점을 위해서라도 한·일은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점들을 인식하여 한·일 경제인들은 지난 제43회 한일경제인회의(2011)에서 한·일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자는데 합의를 본 것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하나의 관점은, 한국이 미국·EU와 FTA를 체결했고 일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일 간 하나의 경제권 나아가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문제와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자가 주로 자국시장의 확대적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비해, 후자는 EU·NAFTA와 마찬가지로 수요의 확대적 개념에 그치지 않고 공급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요컨대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된다는 것은 한·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기지의 건설을 한·일을 시야에 넣어서 설계하고, 이에 따라 역내 인적·물적 생산요소를 자유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FTA/EPA체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한·일 FTA/EPA 체결 시, 지금도 크게 존재하는 한국의 대일역조는 보다 확대될 것이고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부분인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들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무엇보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화가 갖는 이익을 한·일 양국이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서도 중국경제에 일방적으로 의존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한·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조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정비시키기 위해서 한·일은 한·일 간 FTA/EPA, 하나의 경제권화가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화를 통해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 지금과 같이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한 과잉경쟁 구조로부터 벗어나 한·일 간 교역물의 교역조건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한·일 FTA/EPA, 하나의 경제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접근 방법이 적합한 것인가?

1. 작년(2011) 10월의 野田총리에 의해 제의된 700억불 규모의 한·일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FTA/EPA 체결을 위한 한국의 국민정서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통화스와프 규모를 무한대로 확대하게 된다면 한·일 FTA/EPA체결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 일본경제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한국인에게 외환시장 불안을 크게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지난 날 아시아 금융위기로 한국이 IMF관리체제로 뒤편으로써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혼란과 국부유출을 초래했으며, 일본 또한 금융시장의 마비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한·일의 공조체제의 확립이 양국 공히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2. 양국의 정책당국에 의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일을 시야에 넣은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이다. 한·일 기업들이 리스크 분산을 포함한 시장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게 되면 그만큼 양국 간 경제활동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의 제도를 점검하여 한일을 포괄하는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을 가로 막는 규정을 파악하여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한·일 양국에 걸쳐 자연스럽게 구입·활용할 수 있으면, 양국기업이 보다 유리한 생산요소의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국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양국기업 특히 한국기업에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서 그러한 활동의 연장으로써 첨단기술 개발과정에 한·일이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그것도 한·일의 우호분위기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의 경제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하나하나 축소·제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이미 진척되고 있는 것이지만, 한일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증가시키면 그것도 한·일의 분위기를 크게 개선시키게 될 것이다.

일본기업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한·일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이 확대되면 그것은 곧 대일역조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한·일 FTA/EPA를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써 크게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활동을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 정부에 의한 글로벌 데스크를 설치하여 금융기구의 정비를 비롯한 제조건을 치밀하게 정비시켜 갈 필요가 있다.

5. 지난 3.11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었다. 한국경제인들은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복구과정에 진심어린 마음으로 일본정부 및 경제단체의 협조 하에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6. 양국 간에 긴밀한 협의를 요하는 통상현안이 자주 출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상현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구축하여 이 기구를 중심으로 수시적 협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한일 FTA/EPA가 체결되고 양국이 하나의 경제권을 이룸으로써 이 토대위에서 한·일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형성시키게 된다면, 한·일 경제는 그들이 투입한 코스트를 크게 상회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일·일한 경제협회는 이러한 방향에 입각하여 한일 양국이 경제협력을 확대·강화시켜 가야할 것이다.

今後의 韓日 經濟協力の 思考에 對하여

SJC(Seoul Japan Club) 栗谷 勉 前理事長

앞으로의 한일경제협력 방향

2012년 3월 22일(목)
서울재팬클럽 전이사장 아와야 쓰토무

서울재팬클럽

- 구서울일본상공회, 구서울일본인회, 구서울조인트벤처회 등, 별개로 활동하고 있던 조직을 1997년에 통합하여 발족시킨 단체. 한국내의 일본기업 및 일본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정부에 대한 조언·제언, 한국기업과의 교류, 한일문화의 가교, 주한일본인 사회의 커뮤니티 장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회원수 : 법인회원 372사, 개인회원 1,857명 (2012년 2월 현재)
- 이사장 : 고바야시 타다시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

2011년의 주요 추진사항

상공회의소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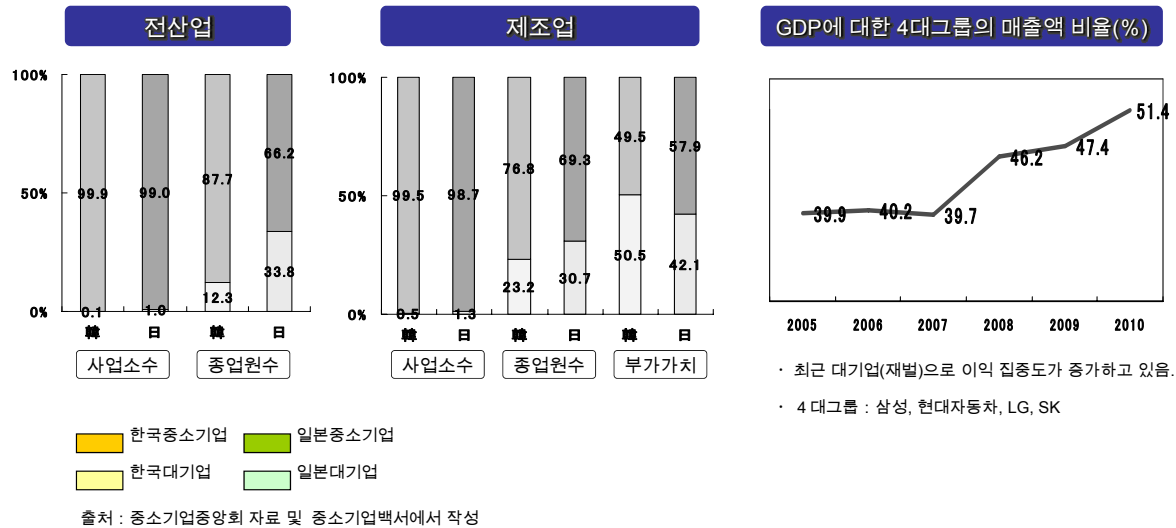
-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35항목(신규10, 계속 25))을 정부에 제출
- 한일EPA/FTA의 실현을 위한 조기교섭 재개, 조기체결 요망서를 정부에 제출
- 전경련과의 공동세미나 (기조강연 : 鷹信彦씨)
- 한일경제협회와의 교류
- 동일본대지진 복구지원 자선 이벤트 개최
- 기타 한일경제교류 촉진을 위해 정·재계의 관계자와 면담·간담
- 이사장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PCNC)의 멤버
- 찬조회원제도 설치

일본인회 기능

- 일본인학교 소유·운영
- 회원간의 친목·교류
- 한일교류 지원·협력
- 한일교류한마당 참가·협력
- 문화행사·스포츠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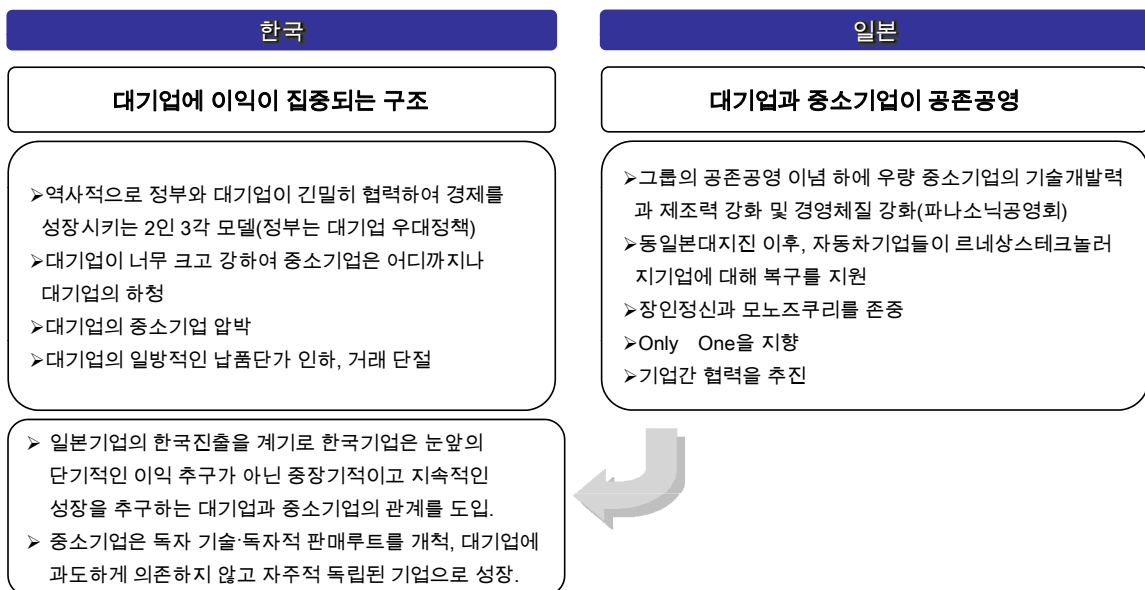
SJC의HP: <http://www.sjchp.co.kr/>

- 최근 한국에서는 대기업(재벌)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정부는 양극화 시정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제창하고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 일본의 장인정신과 모노즈쿠리를 존중하는 개념을 도입,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독립된 기업으로서 성장



■ **한일양국의 수요를 포함한 자원 획득**

한일양국의 수요를 합하여 하나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 양국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정부간 파이낸스·테크놀로지 연계도 도모해 나가고 보다 유리하게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섭력을 강화하여 권익확보·공동개발을 추진.

■ **제3국에 대한 인프라 수출 협력**

인프라 수주에서 우수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플랜트·인프라 수출능력과 일본의 파이낸스·상사의 종합력 등을 조합하여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인프라개발 수요에 대응.

■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과 제휴**

일본기업으로부터의 단순한 기술 취득에 그치지 말고 장인정신과 모노즈쿠리 정신을 존중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개념을 일본기업의 진출을 계기로 도입.

한국의 중소기업은 독자의 기술·독자의 판매루트를 개척하여 과도하게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독립된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지?



이를 위해서는 교류 확대가 중요.

- 인재교류·기술교류 확대
- 부품·소재공급견본시 개최
- 중소기업미션 실시

韓日을 하나의 經濟圈으로 하는
生産 네트워크의 새로운 構築

(財)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이우광(李佑光) 諮問委員

<韓國側 發表者> 李 佑 光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1) 姓 名 : 이 우 광 (李 佑光 : LEE WOO KWANG)

2) 生年月日 : 1952年 5月 17日

3) 履 歷

1972年 : SEOUL 中央大學校 政經大學 統計學科 入學

1978年 : 中央大學校 卒業

1978年 : 日本 東京大學校大學院 經濟學研究科 外國人研究生 入學

1981年 : 東京大學大學院 經濟學研究科 理論經濟學研究科 碩士博士課程 入學

1988年 : 東京大學大學院 經濟學研究科 碩士博士課程 修了

1989年 : 三星經濟研究所 經營研究室 日本研究TEAM長 入社

1993年 : 三星經濟研究所 日本研究室長

1997年 : 三星經濟研究所 政策CENTER 首席研究員

1998年 : 三星經濟研究所 海外研究室長

2000年 : 三星經濟研究所 日本研究TEAM長

2002년 : 三星經濟研究所 政策연구센터 首席研究員

2004년 : 三星經濟研究所 國際協力센터 日本研究팀장

2005년 : 三星經濟研究所 知識經營센터 日本研究 팀장

三星經濟研究所 日本語 사이트 www.SERIJapan.org 총괄

2007년 : 三星經濟研究所 글로벌연구실 日本研究팀장

2011년 : 韓日産業技術協力財團 諮問委員

4) 主要 研究 및 著書

- 1990 「일본상인정신의 형성과 특징」, 삼성경제연구소
- 1991 「대일 기술획득과 활용을 위한 방안」, 한국과학기술청
- 1998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 2004 「한중일 3개국 경쟁력비교 공동연구」, 일본경제연구센터, 공동연구
- 2006 「현대일본기업3」, 공저 (일본)有斐閣
- 2008 「일본시장 진출의 성공비결 비즈니스 신뢰」,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2007 ~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SERICEO “일본재발견” 고정출연

한·일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하는 생산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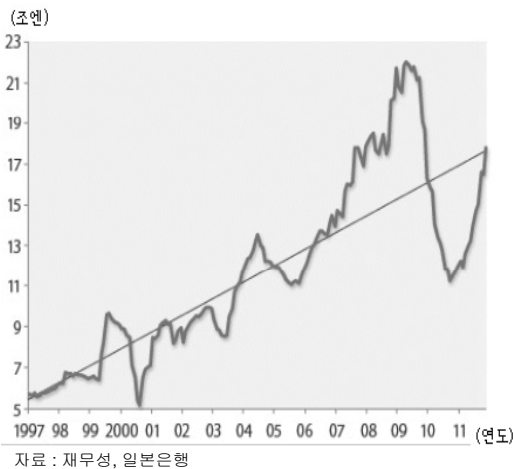
李 佑光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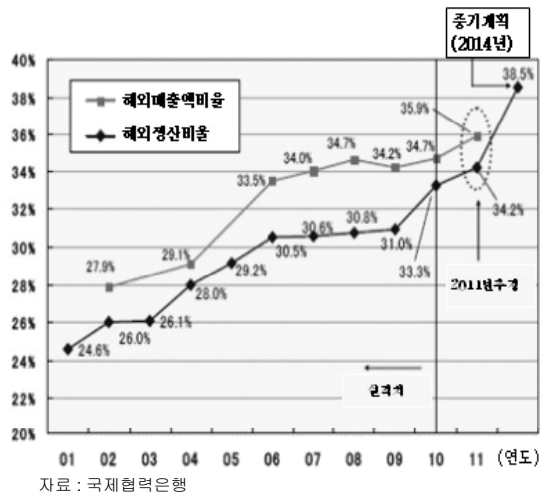
1. 해외직접투자, 해외생산비율 급증

- 리먼 쇼크 이후 주춤했던 일본기업 해외진출이 최근 들어 다시 급증
 - 2008년 과거최고치인 1,308억 달러, 2010년 572억 달러, 2011년 1,156억 달러로 85%나 증가
- 일본제조기업들은 해외생산비율을 향후에도 증가시킬 전망
 - 해외생산비율은 2011년 34.2%에서 2014년에는 38.5%로 증가시킬 전망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액 추이



일본제조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추이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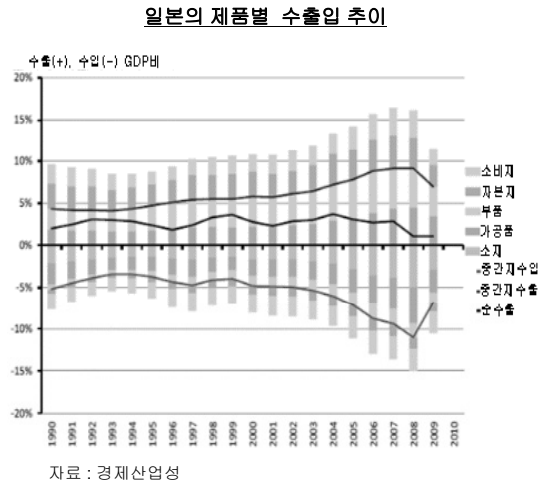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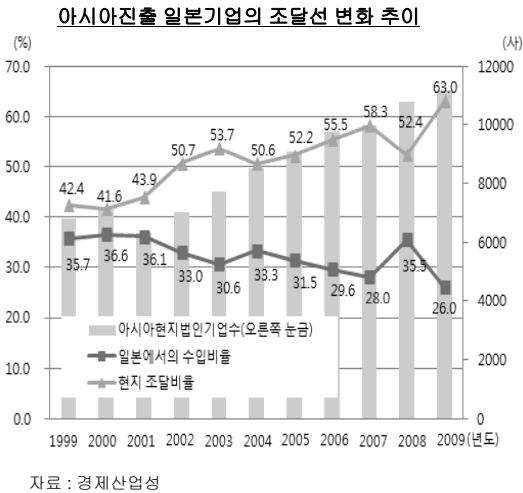


2. 아시아 진출, 현지조달 증가 ⇒ 소재 · 부품 수출 감소

➢ 아시아 진출 증가, 현지조달 증가, [일본으로부터] 수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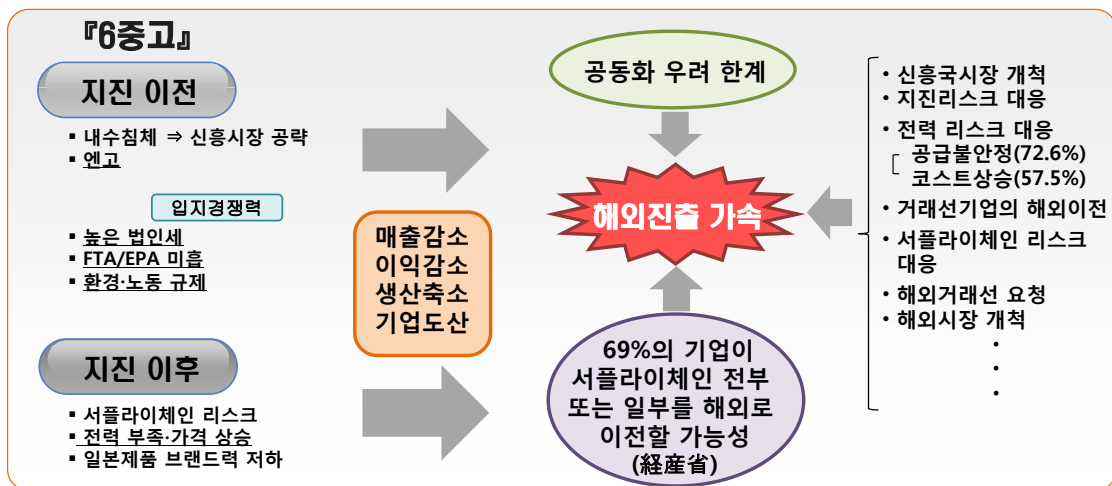
- 10여년간(1999 → 2009) 현지조달비율이 42.4% → 63.0%로 증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율 35.7% → 26.0%로 감소
- 현지조달은 진출국 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현지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의 조달 증가

➢ 일본의 강점분야인 가공품(소재) · 부품 · 자본재(장치) 수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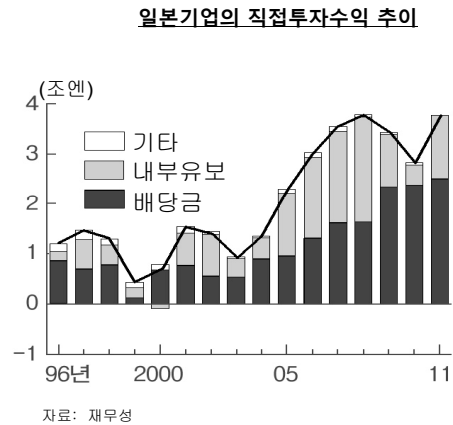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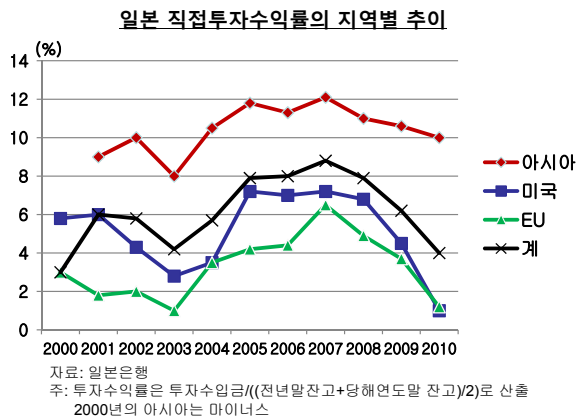
3. 『6重苦』로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불가피

- 일본기업들은 리먼 쇼크 이후 내수부진 ⇒ 신흥시장 공략, 엔고, 입지경쟁력 열화로 해외진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나, 東일본대지진, 태국홍수 등으로 서플라이체인 훼손, 전력문제 등이 가세하여 최근 해외진출이 가속
- 공동화 우려로 해외진출을 자제하자는 분위기도 있으나, 일본기업들은 한계에 도달
 - 국내에서 사업 축소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얻은 이익으로 고용확대, 기술개발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
- 일본기업의 69%가 서플라이체인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4.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이 적극적인 이유

- 일본의 대외직접투자 비중은 미국, EU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
 - 2008년 말 대외직접투자잔고/GDP는 미국 25.6%, 독일 36.0%임에 비해 일본은 12.3%에 불과(한국은 27.1%)
 - 일본의 직접투자수익률은 6% 정도로 미국 8.9%, 영국 7.5%에 비해 낮은 수준
- 2011년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수익이 3조 8천억엔(34% 증가)으로 과거 최고
 - 해외직접투자 확대로 이익(배당금, 사내유보)을 국내로 還流하는 『투자입국』으로 전환 중
- 아시아지역 직접투자수익률이 미국, EU에 비해 월등히 높은 약 10%



5. 최근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 地産地消, 지식·기술산업 이전, 중국 리스크 확대 등이 주요 배경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패턴 변화의 배경

	리먼 쇼크 이전	리먼 쇼크, 동일본대지진 이후
진출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시장 공략, 수출 가공거점 마련을 위해 진출 · 핵심 부품·소재는 주로 수출 · 조립 공정은 현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룸 존’ 전략에서 ‘地産地消’ 전략(현지생산, 현지판매)으로 진화 · 생산기지도 이전(입지여건 악화) · 내수용 산업도 적극 진출(내수부진)
진출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전기·전자 및 관련 중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진출업종에 소재산업인 화학, 내수산업도 진출하기 시작
진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과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중국, 인도 ·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태국 등 동남아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성장성을 중시하는 진출 · 중국, 태국 중심에서 타 지역으로 분산 · 소득상승, 저렴한 임금을 겨냥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진출 확대 · 입지여건이 양호한 한국, 대만 진출도 가시화
진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단독 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 합작, 단독 등 다양한 투자 형태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생산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 등 핵심분야도 일부 이전 · 현지제품 개발을 위한 R&D 기능도 이전 · 최신제품도 현지에서 생산 · 마케팅 기능 강화 및 본사도 이전
기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조립의 대기업 · 동반 중견·중소 기업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중소기업 진출이 적극적

자료: 저자 작성

6.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1)

① 신흥국 시장을 겨냥한 M&A 증가

- 2011년도 상반기(4~9월) M&A 건수는 241건으로 반기 베이스로는 과거 최대
- 내수산업도 본격진출, 중국을 생산거점에서 판매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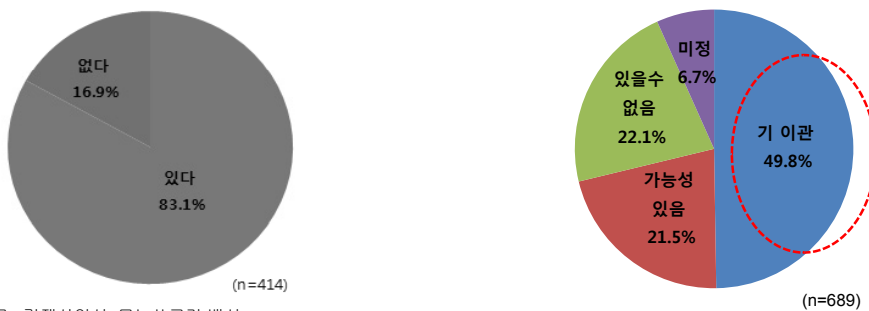
② 소재·부품 등 주력제품의 해외진출도 활발

- 신흥국 수요확대, 엔고 대책, 서플라이체인 리스크 분산, 전력부족 장기화 등이 배경
-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클러스터를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

③ R&D 거점의 아시아 진출 증가

- 高코스트 다운그레이드 → 低코스트 업그레이드, 우수인재 확보 등

일본기업의 주력제품 및 핵심기술의 해외 이전 현황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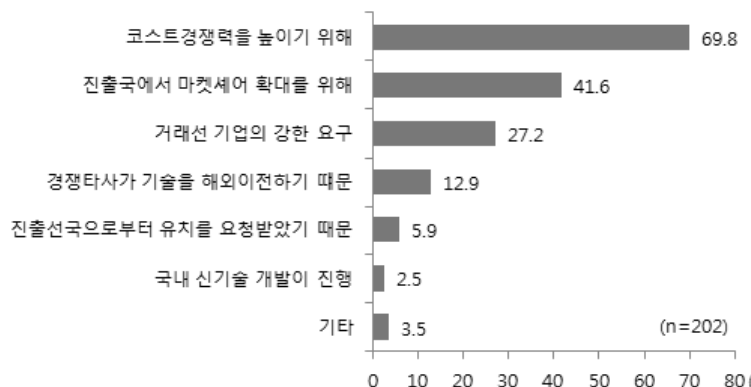
7.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배경

➢ 코스트 경쟁력 강화(69.8%), 시장점유율 확대(41.6%), 거래선 요구(27.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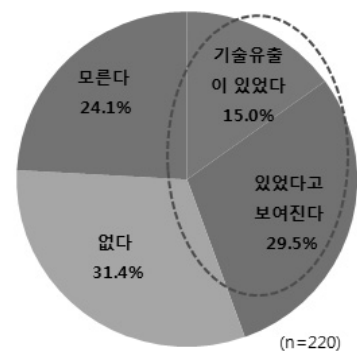
➢ 해외진출 시, 기술유출을 우려

- 이미 기술유출이 있었다가 15.0%, 있다고 보여진다가 29.5%

일본기업이 핵심기능을 이전하는 이유



해외진출시 기술유출 유무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쓰쿠리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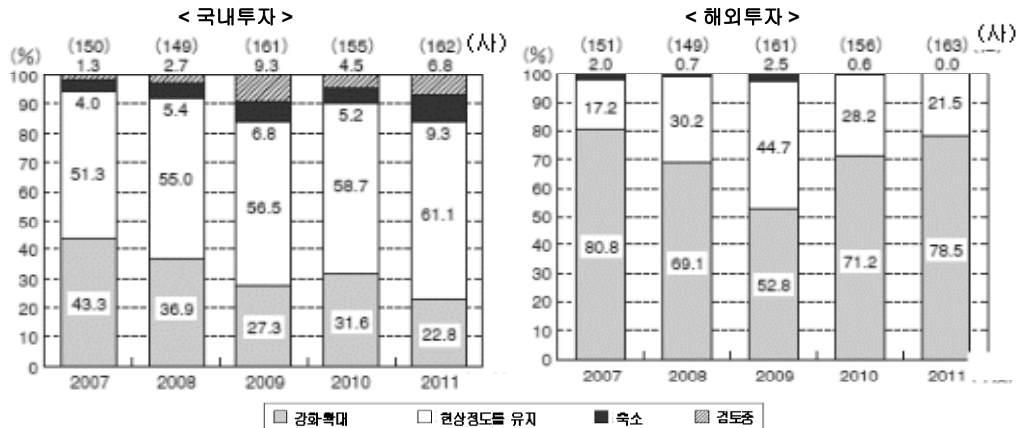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8.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2)

④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적극적 : 일본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

- 일본 내 소기업 집적지가 공동으로 해외진출(일본 지자체, 정부도 지원)
- 교토시, 군마현, 하마마쓰시, 도쿄 오타구, 가쓰시카구 등[일본경제신문 10.31字]
-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자금, 노하우, 서비스 등에 한계
- 일본 종합상사, 해외서비스 전문기업들이 공단조성, 서비스 등을 지원

일본 중견·중소기업의 향후 해외/국내 사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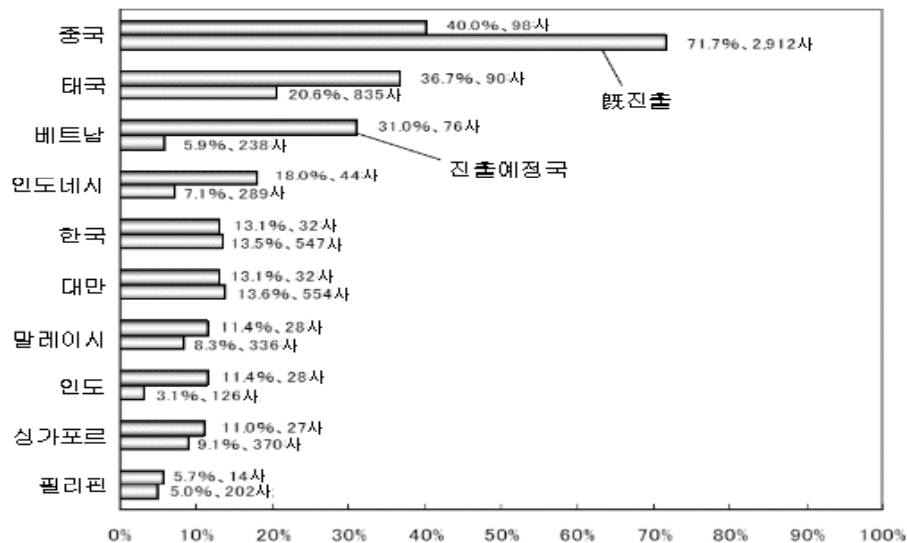


9.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3)

⑤ 진출지역을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 분산

- 중국, 태국 집중의 기존 해외 進出先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국 등지로 분산

최근 일본기업 향후 진출 예정국 10개국



10. 최근 들어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가 적극적

➤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기업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선이 아니었음

· 2011년 들어 125% 증가,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다음

최근 일본기업의 아시아지역 직접투자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억불)	증가율(%)
중국	65.8	61.7	62.2	65.0	69.0	72.5	127.8	76.3
홍콩	17.8	15.1	11.3	13.0	16.1	20.9	13.6	△34.6
대만	8.3	4.9	13.7	10.8	3.4	-1.1	8.6	n.A
한국	17.4	15.2	13.0	23.7	10.8	10.9	24.4	124.8
싱가포르	5.6	3.8	22.3	10.9	28.8	38.5	44.9	16.8
태국	21.3	19.8	26.1	20.2	16.3	22.5	71.3	217.4
인도네시아	11.9	7.4	10.3	7.3	4.8	4.9	36.1	636.1
말레이시아	5.2	29.4	3.3	5.9	6.2	10.6	14.3	35.9
필리핀	4.4	3.7	10.5	7.1	8.1	5.1	10.2	98.5
베트남	1.5	4.7	4.8	11.0	5.6	7.5	18.6	148.4
인도	2.7	5.1	15.1	55.5	36.6	28.6	21.1	△26.2
합계	161.9	171.7	193.9	233.5	206.4	221.3	392.6	77.4

자료 : JETRO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1.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목적이 다양

➤ 최근 일본기업들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국에 첨단제품의 생산기지, 대기업과의 협력, 한국수요를 겨냥한 진출,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연구개발 거점, 기업간 제휴, 전력불안 해소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

분류	기업명	내용	배경
첨단제품 생산기지	도레이	탄소섬유(양산제품)공장 신설	· 전력요금, FTA 등
	旭化成	ABS 수지용 아크릴 증산	· 세계최대 생산거점으로 활용
첨단소재 생산 (한국 대기업과 협력)	宇部興産	삼성과 수지재료 생산	· 굴절가능 패널의 한국수요 예상
	住友化學	삼성과 터치패널 공장 건설	· 한국 수요 대응
서플라이체인 재구축	日立金屬	마오카(도치기)공장의 자동차 부품 생산 일부를 한국·미국에 이전	· 전력 제한 등에 대응
	일본 바르카공업	반도체제조장치의 고기능부재 생산	· 거래선 한국기업의 진출 요청 · 일본 내 집중 리스크 분산
연구개발 거점	알박	액정패널 제조 분야	· 해외 첫 연구개발 거점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제조 장치	· 기술자의 30-40% 상주
기업간 제휴	JX닛코닛세키	SK이노베이션과 석유화학제품, 윤활유 합병공장 건설	· 전략적 제휴
전력불안 해소	소프트뱅크	데이터 센터의 한국 이전	· 전력문제 등에 대한 리스크 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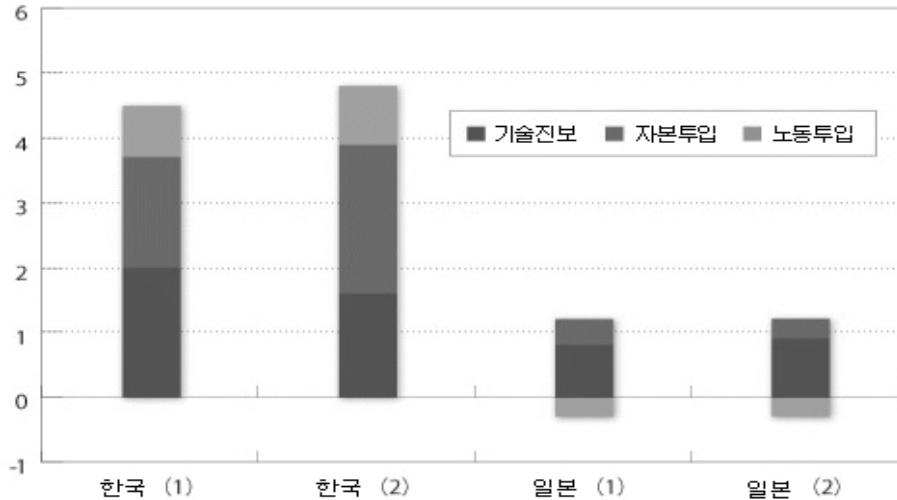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2.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1) 시장 성장성

➤ 일본의 잠재성장력은 1% 수준인데 한국은 4% 정도

- 일본은 노동투입 감소, 가계 저축을 감소로 인한 자본투입 감소가 잠재성장력 저하의 원인

한·일 양국의 잠재성장률과 요인 분해



자료 : KDI, 한국은행, 내각부

13.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2) 전기요금,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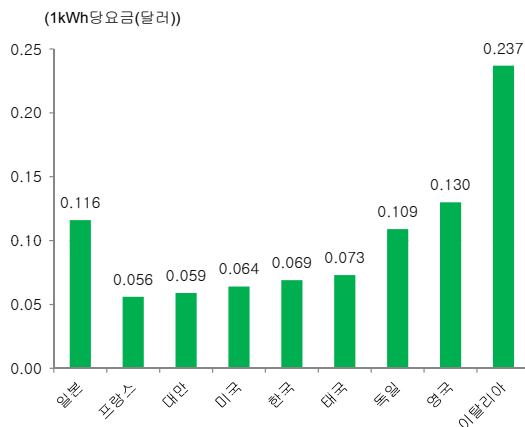
➤ 일본의 전기요금[산업용]은 한국의 2배 정도

- 향후에도 원발 문제로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

➤ 법인실효세율은 한국이 24.2%, 일본은 4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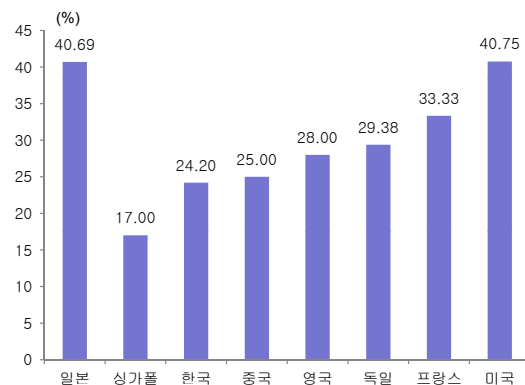
- 일본은 재정적자 문제 때문에 법인세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

전기요금의 국제비교(산업용, 2007년)



자료 : 미국에너지청정보국

법인실효세율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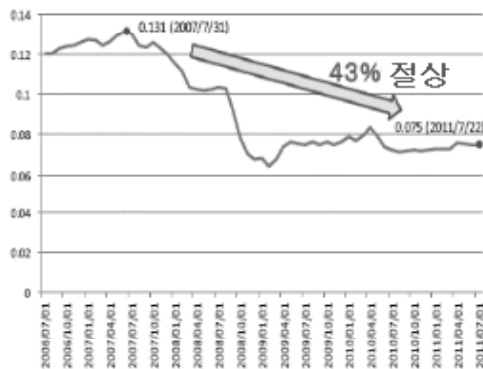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주: 한국은 서울 기준

14.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3) 환율,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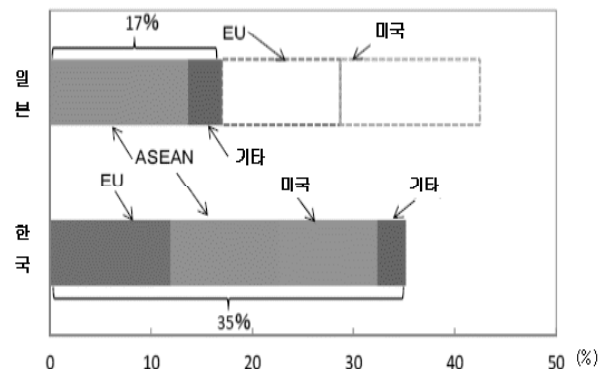
- 한국이 의도적으로 원저를 유도하기 때문에 일본정부도 엔고 시 적극 개입 주장
 - 원저는 국제금융불안, IMF 경제위기 시의 한국의 금융제재 때문이라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
- 한국보다 미흡한 FTA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TPP, 일EU FTA, 한중일 FTA를 적극 추진
 - FTA/EPA 체결 · 서명국이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35%, 일본은 17%로 절반 정도
 - 일본은 2020년까지 FTAAP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

최근 엔/원 환율 변화 추이



자료 : 재무성

일경평균주가와 원/엔 추이



자료 : 내각부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5. 한일 입지경쟁력 비교 : (4) 물류

- 한국의 물류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 : 동해안지역 일본기업이 부산을 선호
 - 특히 동해 지역 입지 기업에게 상당히 유리

세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취급량 변화(1980 ⇒ 2010년)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순위	항만명	취급량 (만TEU)
1	뉴욕/뉴저지	195	1	상해	2,907
2	노텔담	190	2	싱가포르	2,843
3	홍콩	146	3	홍콩	2,353
4	고베	146	4	심천	2,251
5	高雄	98	5	부산	1,416
6	싱가포르	92	6	영파	1,314
7	산황	85	7	광주	1,255
8	롱비치	82	8	청도	1,201
9	함부르크	78	9	두바이	1,160
10	오를랜드	78	10	노텔담	1,115
13	요코하마	72	27	도쿄	420
16	부산	63	36	요코하마	328
18	도쿄	63	46	고베	225
39	오사카	25	51	나고야	211
46	나고야	21	56	오사카	184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6. 일본기업이 한국을 진출선으로 주목하는 배경

- 한국진출은 서플라인체인 재구축의 관건인 리스크와 코스트의 밸런스 유지 가능
- 노동집약형 산업보다는 기술집약형 산업이 진출하기 좋은 여건
- 한국 글로벌 대기업의 약진, 한국기업의 제조능력을 활용 가능

- 1) 가까운 거리 : Just in time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거리
- 2) 물류거점의 발달 : 부산, 서해안 등
- 3) 산업집적, 기술집적, 질 높은 노동자
 - 기술집약형산업의 경우 전체 코스트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
- 4) 생산코스트 절감 : 초기 투자비용 저렴, 값싼 전기료와 인건비, 낮은 법인세 등
- 5) 판로확보 : 한국 대기업과의 협력 용이(신제품개발, 글로벌시장진출, 생산능력 등)
- 6) 한국기업의 기술력 : 모노쓰쿠리 기술 활용 가능
 - 일본제품 경쟁력의 원천인 特注品 (커스터마이즈 제품) 생산에도 좋은 여건
- 7) 자연재해 최소 지역 : 지극히 낮은 지진발생, 홍수 확률
 - 태국 홍수로 인한 일본기업의 피해 막대

17.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는 상당히 적은 편

- 한국진출 일본기업은 아시아 타지역 진출보다 경영애로 사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19개국 중 한국은 코스트 삭감의 어려움(3위)을 제외하면 애로사항이 타지역에 비해 훨씬 적은 편
 - 임금상승, 경쟁대두 등이 주요 애로요인이나 다른 입지경쟁력은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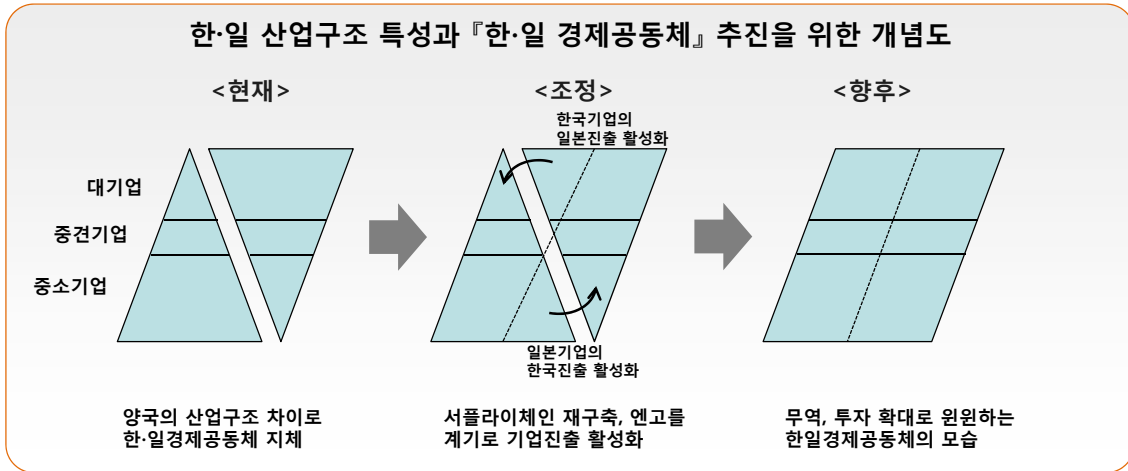
한국진출 일본기업의 경영애로 사항

경영애로 항목	한국에서 애로를 느끼는 기업의 비중	조사지역과 비교 순위 (19국가·지역 중)
1. 종업원의 임금상승	60.2%	11위
2. 조달 코스트 상승	50.0%	14위
3. 경쟁상대의 대두	48.9%	10위
4. 현지 인재의 능력·의식	34.9%	14위
5. 종업원의 질	27.3%	17위
6. 한계에 달한 코스트 삭감	55.6%	3위
7. 원재료·부품 현지조달의 어려움	19.4%	17위
8. 간부 후보 인재의 채용난	22.1%	18위
9. 거래선의 가격인하 요청	30.7%	12위
10. 품질관리의 어려움	19.4%	16위

자료 : JETRO, 순위가 19위에 가까울수록 경영애로 사항이 적다는 것을 의미

18. 일본의 변화를 『한·일 경제 공동체』 구체화의 기회로

- 한일FTA(한일경제공동체)가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한국의 중소·중견 기업부분이 취약하기 때문
- 또한 한국 대기업의 일본 진출도 여타 지역에 비해 소극적
-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한국기업의 일본진출이 확대되지 않으면 한일FTA와 같은 한일경제 공동체 구상은 구호에 그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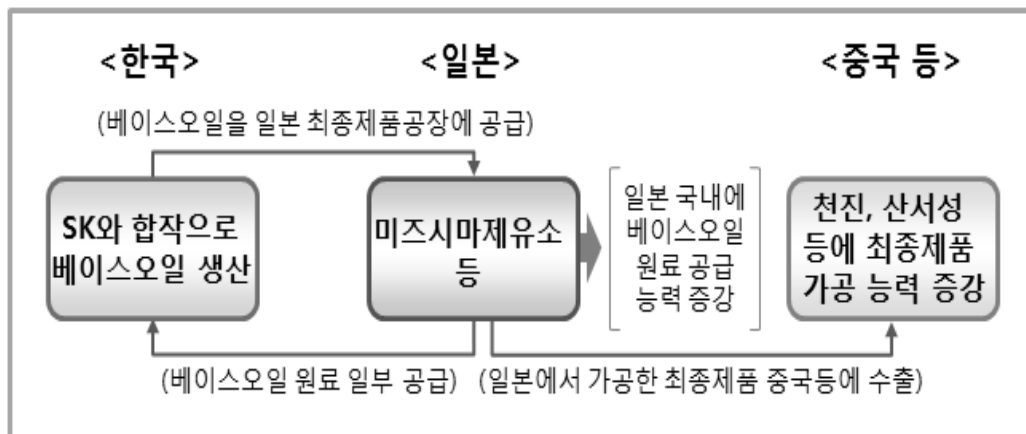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9. 양국 기업이 Win-Win하는 비즈니스 모델 사례

- JX닛코닛세키는 SK와 합작하여 베이스오일 원료를 SK에 일부 공급하고, 여기서 생산된 베이스오일로 일본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일본 국내 또는 중국 등지로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한·중·일 기업이 Win-Win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JX닛코닛세키의 한중일 비즈니스모델



자료 : 일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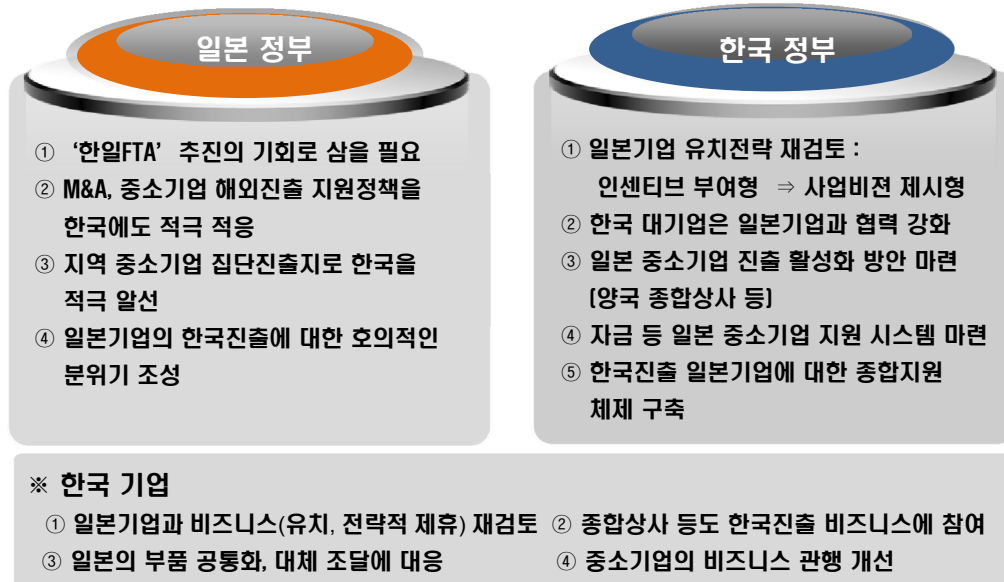
KJCF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 한·일간 협력방안

➤ 협력 방향 : 일본의 변화를 한일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기회로 인식할 필요

- ① 한국은 부품·소재·장치의 대일 의존 문제 완화 기회 ② 명실공히 '한일경제공동체' 형성 호기
- ③ 아시아 생산시스템 재편에 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

➤ 협력 방안



감사합니다